

“목소리·표정 연기에 가장 많은 시간 할애”

'날아라 개천용'서 권력형 검사 소하 '파친코'로 첫 해외진출·OTT 도전 "캐릭터보단 함께한 감독들 생각 나 연기 원동력은 가족...큰 동기부여"

연기자 정웅인(50)은 연기 한 지 올해로 꼭 25년이 됐다. 그저 "연기자로서 다양한 과제를 받으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새 이름 석 자를 대중의 뇌리에 깊게 새겨 넣었다. 대표작만 봐도 그렇다. 까불이 웅인(세친구), "죽일 거다" 한 마디면 설명이 끝나는 회대의 살인마 민준국(나의 목소리가 들려), 불륜대지만 심성은 따뜻한 교도관 팽 부장(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개성 만점 캐릭터가 이력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렇게 맞이한 새해, 여느 때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23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권력형 부부장 검사로 등장해 주인공 권상우·정우성과 내내 얽혀라워치했다. 직후 설 틈도 없이 미국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제작하는 드라마 '파친코'(Pachinko) 촬영 준비에 나섰다. 26일 서면으로 만난 정웅인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를 끝낸 소감이 어떤가.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사히 끝나길 바랍니다' '무탈하게 마치고 싶습니다'고 하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도 그렇고, 요즘 그간절함이 더욱 커졌어요. 그야말로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25년 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맡았다. '터닝포인트'를 꼽자면? "사실 다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데... 2000년 MBC 시트콤 '세친구'의 웅인이라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25년 해보니까 캐릭터보다는 사람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장항준 감독이 특히 그래요. 장 감독이 저를 데뷔시켰거든요. 1998년 SBS '순풍산부인과'에 캐스팅해주신 김병욱 감독님도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연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장항준 감독은 데뷔작 '천일야화'의 연출자인 김병욱 PD에게 정웅인을 추천했



최근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을 끝낸 연기자 정웅인은 뒤이어 미국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촬영을 위해 해외로 날아간다. 연기 생활 25년에도 여전히 새로운데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자스트엔터테인먼트

다. 서울예술전문대(현 서울예대) 89학번 동기인 두 사람은 장진 감독, 연기자 장현성 등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까가 넘치는 동기와 선후배 사이에서 보면 대학 시절이 그에게는 "자극제"가 됐다.

-연기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처음 대학에 갔을 때 학년당 120명이었어요. 그중 연기 전공이 70명 정도였고요. '이 안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비빔췌. 한 번쯤은 '먼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무엇인가. "좋은 연기이죠. 어색하지 않게,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늘 애쓰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표현된 감정을 실제 목소리나 표정으로 보여주는 과정은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노력해왔어요. 연기 같지도 않지 않아요. 새 캐릭터에 대한 도전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목말라하던 새 도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파친코'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됐다. 연기자 윤여정, 이민호 등이 함께 한다.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촬영을 위해 곧 출국해요. 제네 정말로 새

로운 도전이죠. 국내외 다른 제작·촬영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무척 설레요. 역할에 대해 아직 설명할 수가 없어 참 아쉽네요. 이민호·윤여정 선생님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든든한 '응원군'은 세 딸이다. 2014년 MBC '아빠! 어디가?'에 출연할 당시 7살이었던 첫째 딸 세윤 양은 어느덧 중학생이 됐다. 영롱한 매력을 뽐내던 소윤·다윤 양은 올해 12살과 9살이다. -아직도 세 딸을 그리워하는 시청자가 많다. "다들 많이 컸어요. 막내는 대본을 집으로 가져가면 대사를 맞춰주기도 해요. '날아라 개천용'의 제 캐릭터 이름을 형광펜으로 그어놓기도 하고요. 대사를 어떻게 외우고 표현하는지 물어보곤 해요. 연기하는 걸 보여주면 '역시 다르다'고 좋아하죠. 연기를 재미있게요." -어떤 아빠인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부부사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죠. 예전엔 무뎠었는데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큰딸 세윤이예전 미래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저 도시락 잘 싸주고, 잘하고 있다며 응원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더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연기의 원동력도 가족의 힘이겠다. "결혼하기 전에 '기왕 발을 들였으니 뭐라도 하자'는 느낌이 컸어요.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가족이 생기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 필히 해 도 가족을 위해 하게 돼요. 다만 거기에서 나만의 목적을 생각해버려가고 있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정웅인 ▲1971년 1월20일생 ▲1993년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졸업 ▲1996년 SBS '천일야화'로 데뷔 ▲1999년 SBS '은실이' 연기대상 신인상 ▲2000년 MBC '세 친구' ▲2001년 영화 '두사부일체' ▲2013년 SBS '나의 목소리가 들려' 연기대상 특별연기상 ▲2014년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2019년 JTBC '보좌관'·KBS 2TV '99억의 여자' 등

연예뉴스 HOT 3

영화 '미나리', AFI 선정 '올해의 영화'에



영화 '미나리'

윤여정·한예리·스티븐 연 등이 출연한 영화 '미나리'가 미국 영화 연구소(AFI)의 '2020년 올해의 영화'에 선정됐다. 26일(한국시간) AFI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영화'를 선정, '미나리'를 포함시켰다. 재미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는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 애니메이션 '소울' 등과 목록에 올랐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한인 이민가정의 이야기를 그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으로 꼽히고 있다.

배성재 아나운서, SBS에 사의...프리 전향



배성재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배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전향을 위해 사의를 밝혔다. 2016년 공채 14기로 입사한 배 아나운서는 SBS의 간판급 진행자 겸 DJ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월드컵, 올림피아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다양한 경기를 중계한 캐스터로도 이름을 얻었다. 2018년 '올해의 SBS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가요계 비위대 "방역 기준 완화해 달라"

가요계의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했다. 가수 기획사, 공연기획사, 프로덕션업체 등 가요 관련 종사자들이 꾸린 비대위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대중음악 공연계의 생존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냈다. 비대위는 "대중음악 공연계는 코로나19 타격에 지난 1년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면서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방역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음악 공연과 타 장르 공연의 집객 환경성 유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집객 기준 완화, 공연장 외 일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객석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즐거운 TV·똑똑한 TV...TV프로그램 (27일·수)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9-0011 SBS 02-2061-0006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1588-1580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KBS1, KBS2, MBC, SBS, EBS1, and 지역민방 channels.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0년 전통 도자기 마을, 두 장인의 눈맞춤

CHANNEL 오늘의 채널A 침묵에는 아이 콘택트(오후 9시 20분)

경남 합천 가야산에 있는 600년 전통의 도자기 마을. 현재 도예인이 몇 명 남지 않아 전통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생존을 위해 대량 생산을 선택한 '화반 선생'이 전통 방식으로 수작업을 고수하는 죽마고우 '토공 선생'을 설득하고 나선다.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TV조선, JTBC, and MBN channels.